

---

# 2021년 제49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1. 12. 3. ~ 12. 9.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산이 좋아 물이 좋아		
방송일자	2021. 12. 3.	시청률	0.034

### 【총 평】

‘박달골 마을의 김장 대작전-경북 의성’편에서는 한해 먹거리 준비인 김장철을 맞아 8남매의 김장 담그기를 통해 가족 사랑을 담아냈다. 의성군 옥산면 박달골로 4년 전 귀촌한 60대 부부를 중심으로 8남매가 김장을 담그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이 그려져 가족애를 느껴보는 계기를 제공했다. 배추 수확에서 양념 만들기, 버무리기 등 농촌의 재래식 김장 담그는 과정이 향수와 추억을 소환해 몰입감을 주었다. 특히 남매 간 사랑도 점차 사라져가는 세태에서 김장 담그기를 매개로 비대면 시대 가족애를 일깨운 소재가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고, 신축된 황토방, 황토찜질방으로 귀농 정보와 이점을 알렸고 친환경 농법으로 사과를 재배하는 내용 등을 소개했다.

### 【구성 및 내용】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박달마을 귀농한 60대 부부가 마을사람들과 함께 김장을 하며 어울리는 과정을 담백하게 담아냈다. 산골마을의 정겨운 풍경과 사람냄새 물씬 풍기는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잠시 잊었던 가족애를 느낄 수 있게 한 구성이 돋보였다. 특히 김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를 소개하며 그 과정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담아 낸 인터뷰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밖에 김장철을 맞아 김장을 준비하고 담그는 마을사람들, 60대 부부와 가족들, 두부와 수육을 만드는 과정 등을 전했다.

4년전 사과 농사를 짓기 위해 박달마을로 귀농한 60대 부부가 직접 키운 배추를 수확해 김장 준비에 여념이 없다. 박달골 마을은 김장철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분주하다. 온 가족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여 200여 포기를 담근다. 200포기 김장은 준비하는데 하루, 절이는데 하루, 마무리에 하루가 걸리지만 가족끼리 한자리에 모여 담소를 나누며 힘든 줄도 모르고 김장준비에 한창이다.

김장 준비와 함께 두부 만들기에 들어간다. 직접 키운 작물로 만든 두부와 비지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배추를 절이고 직접 만든 순두부로 늦은 점심을 먹는다. 부부와 누나가 다시 김장준비를 하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늦게 온 막내 여동생이 김장준비에 합류한다. 김장 둘째 날에는 전날 준비한 절인배추에 양념을 버무린다. 더불어 김장 김치와 함께 먹을 돼지고기 수육도 마련한다. 그리고 마을사람들 모두가 한 상에 둘러앉아 김장김치와 수육으로 정을 나눈다. 김장을 하는 날이면 두부도 만든다. 연기가 나는 와중에도 솥 안을 꾸준히 저어줘야 하는 고된 일이다. 직접 키운 작물로 만드는 사람의 정성까지 더해진다. 몽글한 순두부가 완성되면 점심식사가 시작된다. 4년 전 귀농하여 사과농사를 짓는 60대 부부는 가족과 함께 하는 김장으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있다. 부부가 귀촌해서 지은 넉넉한 황토집과 넓은 밭, 밭에서 키운 김장재료를 수확하는 모습, 직접 만든 두부로 만든 순두부국 등 다채로운 모습을 담았다.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1. 12. 3.	시청률	0.002

### 【총 평】

‘경제&이슈’에서는 국민의 최대 관심사이며, 민감한 사안인 종합부동산 과세 및 부동산 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으로 주목도를 높였다. 특히 정부의 종합부동산 세 개정 의미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위한 불로소득을 막겠다는 투기수요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종합부동산세 개정 내용 관련, 연령 별 공제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규정, 공제 한도를 자세히 알려주었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공제금액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으로 상향 조정됨을 전달해 집중도를 높였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관련해서는 개인이 부동산 소유와 관련 홈텍스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15일까지 정정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또 공동명의의 경우 공제비율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 임대주택 소유자도 직접 신고하여 세금 혜택을 받거나 세금분납제도 활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다.

### 【구성 및 내용】

세계와 국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인도와 브라질 확진자수는 줄어든 반면 영국 등 유럽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 국내 상황에서는 내·외국인 입국자 대상 격리조치 정보와 ‘추가접종’이 아닌 ‘3차 접종’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등 3차 접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최근 부동산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배경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개정 그리고 금리 인상이 영향인지 진단하고, 달라진 종합부동산 과세에 대해서 자세히 전달했다. 연령 별 공제 및 부동산 보유 기간별 공제가 발표되었는데, 연령별로는 60-65세의 경우 종전 10%에서 2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개정되었다. 또 나이가 많을수록 공제가 더 크며, 보유기간 공제율은 최대 80%까지 감소해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2%가 종합부동산세를 고지 받았다고 한다. 세금 납부는 6개월 무이자로 분납도 가능하다. 법인과 개인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번 종부세는 개인보다는 법인에 집중적으로 과세가 되었다. 부부 공동의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공동 또는 합산으로 계산해서 낼 수 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내는 세금이 96%를 차지하고, 1주택자가 내는 세액은 3%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 언론의 ‘종부세 폭탄’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과세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것 같다. 이번 종부세 개정의 효과로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두채 이상의 경우는 세금을 더 많이 과세하여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는 목적이며, 법인에 대한 과세는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과다 보유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이다. 또한 세금 부과에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하여 시장에 공급량을 늘리고 집값 하락을 유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개정된 종부세 관련 주요 정보는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1. 12. 3.	시청률	0.049

## 【총 평】

환경보호와 K-콘텐츠를 비롯해 예술인 맞춤형 복지, 대체육 소비 확산 트렌드, 이색적인 지역관광 상품 등 다양한 소재를 전달했다. '페페트병의 변신'은 수거된 페자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재활용되는지 보여준 점이 설득력을 높였고, 순환 도보여행을 하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킹 운동은 환경보호 캠페인 차원에서도 뛰어난 아이템이었다.

이 밖에 '맞춤형 복지'로 예술인 지원'은 열악한 예술인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정책을 소개했고 '대체육 소비 확산'은 대체육의 인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소비자 단체의 주장을 언급한 점이 적절했다.

또 '런던, 한국영화에 매료'는 런던 한국영화제의 다양한 내용과 K-콘텐츠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지역의 자연을 살린 이색 관광상품으로 목포 근대문화유산, 한탄강 주상절리, 소금산 출렁다리, 광주 고싸움 놀이 등을 소개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 【구성 및 내용】

### ■ 페페트병의 변신, 옷·침구 만든다

대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는 주민들이 페트병의 재활용을 위해 포장지를 떼고 공기를 뺀다. 페트병 재활용 업체는 페페트병을 조각 내 원사로 만들고 하얀 섬유 소재의 원사는 투명 페트병으로 만든 것인데 의류, 침구류 등 다양하게 활용한다.

### ■ K-콘텐츠 인기 속 런던, 한국영화제 성황

영국 런던의 극장가에 한국영화 '행복의 나라로'를 보려고 관람객들이 모였다. 특히 사회적 이슈를 담아낸 한국영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런던 한국영화제는 보름동안 영화, 애니, 다큐 등 한국영화 30여 편이 초청되었고 배우 윤여정 특별전도 열렸다.

### ■ '맞춤형 예술인 복지'로 창작의 나래를 펼쳐요

예술인 자녀 돌봄센터는 마포, 대학로에서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상상산업 신예발굴 프로젝트 '2021 비상'은 신진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비상'은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과 공동 전시를 통해 예술인 활동 증명을 해주고 있다.

### ■ '대체육' 소비 확산 속 안전성 논란도 일어

고기지만 진짜 고기는 아닌 대체육은 동물세포를 배양해 만들거나 식물 성분을 이용해 만든 고기로 비건 식당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증가추세이며, 인공육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영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 ■ 뮤지컬 배우와 함께한 '근대문화유산' 탐방

목포 양동교회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로 전국 각지에서 근대문화유산 탐방객들이 모였다. 일제강점기 시절의 역사적 현장을 둘러보며, 뮤지컬 배우가 노래를 전하기도 하고 탐방객들의 연기도 이뤄지는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1. 12. 4.	시청률	0.017

### 【총 평】

“우리는 오늘도 기적의 집을 짓습니다.”편에서는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귀촌을 선택한 젊은 부부의 생활을 통해 자연과 함께 한 아이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모습을 잘 담아냈다. 특히 귀촌에 관한 다양한 사연과 삶이 담긴 에세이와 귀촌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귀촌의 새로운 시각과 다양성을 엿볼 수 있었다.

농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자존감 높게 사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농촌 상생의 활성화와 기여의 가치를 볼 수 있었고 시골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관계이며 이웃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일깨워주었다.

### 【구성 및 내용】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귀촌을 선택한 부부와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두 아이의 해맑은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기적을 바라본 희망의 시간이었다. 큰딸은 올해 일곱 살로 태어나서부터 선천성 염색체 이상으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기적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큰딸의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부부는 깨끗한 물과 공기 그리고 아이들과 세 마리의 반려견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화천으로 내려왔다. 딸의 정원이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 온 아빠와 그런 아빠를 대신해서 엄마는 두 딸을 키우고 살림을 하는 가운데 제 몫의 경제활동을 위해 소목수라는 새로운 직업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서로를 배려해야 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청년 공동체 ‘화담’에서는 젊은 귀촌인들의 모습을 책으로 엮어 ‘전보다 약간만 더 행복하면 좋겠어’의 북토크를 진행했다. 청년 공동체 ‘화담’의 한 회원은 “저희 구성원들이 농촌에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 자신도 음악을 하고 있고, 사진작가도 있고 찻집 사장님도 있고 목수도 있고 다양한데 농촌에서는 꼭 농사만 지어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도 전달하고 싶어요”며 귀촌 생활의 새로운 이상향을 설명했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며 화천에서 다양한 직업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모습의 평온하고 건강한 모습에서 행복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 밖에 화천의 정육점 아저씨의 인터뷰를 통해 귀촌인들이 마을의 학교, 금융권, 우체국 등 여러 시설을 이용하면서 마을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개연성 있게 다가왔고 지역의 상생에 기여함을 볼 수 있었다.

귀농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이 작은 학교를 통해서 배운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작은 학교’의 소중함을 읽을 수 있었다. 30대 부부의 귀촌 2년차 생활을 통해 청년들로 인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기적이란 오늘 하루를 즐겁게 잘 살아가는 것’이라는 소박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1. 12. 5.	시청률	0.139

### 【총 평】

북한의 최근 핫이슈로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 등장 변수에 따른 남북관계의 전망을 살펴보고, 북한 아파트의 실상을 통해 북한의 어려운 주거문화를 알아본 기획이 시청자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친북’에서는 최근의 북한 핫이슈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등장으로 다시 완전폐쇄에 들어간 북한의 최근 상황을 살펴보고 악재 속에서도 남북관계의 급진전을 기대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슈텔링’은 뼈다귀 아파트 정책과 베란다에서의 가축사육 등 북한 주거 실상이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북한의 현주소와 실상을 진단하면서도 종전선언 등 남북협안의 해결은 계속돼야한다는 점, 북한의 열악한 아파트 사정을 남북의 차이로 보기보다 최적화된 문화로 이해하자는 메시지 전달이 프로그램의 제작의도를 살렸다.

###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등장했다. 이에 오미크론의 등장에 따른 북한의 현재 상황과 남북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북한은 국제 뉴스는 조금 늦게 보도하는데 이번 오미크론의 경우 하루만에 상세하게 보도했다. 지난 7월 탈북민 20대 남성이 다시 재입북한 사건이 있었는데, 북한은 남한에서 온 경우 감염우려가 있어 개성일대를 완전 봉쇄한바 있다. 이에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전면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국경개방움직임이 보이는데 오미크론 발생으로 인해 다시 국경봉쇄가능성이 있다. 지난 11월 22일 코백스가 북한을 포함한 19개 국가에 백신 4300만회를 배정했다. 그런데 북한 주민의 일부 백신 접종은 의료체계가 열악한 북한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위험하다. 그러므로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안발을 가능성이 있다.

내년 6월 동계올림픽을 앞둔 중국의 경우 홍콩에서 오미크론 발생이 있었던 만큼 우려를 하고 있다. 이미 2021 겨울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취소되는 등 국제스포츠대회가 취소된바 있다. 종전선언 추진의 주체는 우리나라가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중국, 미국의 경우에는 종전선언에 대해 미진한 입장을 보일 수 있다.

북한의 산지연시 새 아파트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단수를 대비해 욕조를 물탱크로 사용하고 부엌에는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다. 일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멘트 벽체만 조성되고 문, 창문, 도배도 되지 않은 미완성 아파트에 입주한다. 형체만 있는 아파트에 주민이 직접 꾸미는 것이다. 일명 뼈다귀 아파트의 경우 2014년 평양의 23층 신축 아파트가 붕괴되는 등 부실아파트의 우려가 있다.

북한 아파트의 베란다는 한 가구에 보통 2개씩 있는데 옆집과 터서 넓게 사용하는 다양하게 활용하는데 특히 돼지, 닭, 토끼, 오리 등 가축을 키우기도 한다. 이는 용돈벌이에 쓸쓸하기 때문이다. 가축을 키우면 냄새가 많이 나지만 서로 이해하는 분위기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1. 12. 5.	시청률	0.102

### 【총 평】

‘간첩이 된 어부들 - 납북귀환어부간첩사건’편은 공해상에서 북한군에게 불법 납포되어 북한으로 납북되었다가 귀환 후에 간첩이라는 오명을 쓰고 연행되어 국가 권력에 의해 소중한 인생이 왜곡되고 짓밟힌 사건이다. 국민의 사상과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간첩 사건을 조작한 비극을 소개했고 뒤늦게나마 공권력에 의해서 인권이 파괴되고 생존에 위협을 당한 억울한 민간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시간이었다. 이병규 씨는 "앞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개인의 인생을 파탄시키고 가족의 인권을 유린하면 안된다"는 메시지가 큰 울림과 긴 여운을 주었다.

### 【구성 및 내용】

‘간첩이 된 어부들 - 납북귀환어부간첩사건’은 자의적인 행동이 아닌 상황에서 북한에 납북된 후 돌아온 두 사람이 그 후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가 전개됐다.

북한과 가깝고 군부대가 많은 강원도 화천군 고향으로 돌아와 여생을 보내고 있는 이병규 씨는 친구와 전국일주 여행을 계획했다. 배를 타고 부산까지 가려고 인천항에서 흑산도행 조기잡이 배를 탔던 것이 해무 탓으로 선장이 길을 잘못 잡아 북한의 남포부근으로 진입해 북한 경비정에 납포되었다. 평양으로 압송되어 6개월 동안 북한 체제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김일성 생가와 김일성 종합대학 등을 견학했다. 1969년 11월 남한으로 귀환한 이후 해군수사기관에 연행되었지만 무죄로 풀려났다. 군 제대 후 경찰 정보과에서 끊임없이 감시로 피해를 겪어 대한석탄공사 장성 광업소에 취직을 했다. 1985년 3월 3일부터 장성광업소 비위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을 언론이 교묘하게 간첩의 소행으로 꾸미고 이병규씨를 장성광업소 주도자로 몰아 허위로 죄를 씌우고 잔인한 고문을 가했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는 보안사가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해 간첩 혐의 등 범죄사실을 조작, 처벌함을 확인했다. 피해자와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재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고 2011년 재심을 통해서 이병규 씨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져 사건이 발생한 지 40여 년 만에 간첩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최만춘 씨의 사연은 그의 아들이 증언했다. 1963년 6월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어업을 하던 최만춘 씨는 대연평도 서남단에서 어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후 열흘 만에 풀려났다. 처벌이 두려워 북한 억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던 최만춘 씨는 5년 후인 1968년 주문진에 침투한 무장 간첩들의 안내원으로 의심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수사기관은 최만춘 씨가 5년 전 남하한 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빌미로 간첩 혐의를 씌우고 불법 감금과 고문 등 인권을 유린했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최만춘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진실을 규명했고 국가의 재심을 권고했으며, 2014년 재심을 통해서 최만춘 씨와 선원 8명에게 간첩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1. 12. 5.	시청률	0.074

### 【총 평】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개선 해법’편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실상의 원인과 배경을 진단하고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모색했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 변화하고 있는 기업 환경에 맞춰 청년들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공공 위주 근시안적인 정책이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기업과 청년들이 어떻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해 나가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고용 시장 변화에 맞춰 청년들은 구직하기 위해 직업이 원하는 역량을 갖추고 정부는 직업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하며, 학교 교육은 산업계와 연계한 교육 과정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높였다.

###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 속 일자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성장 없는 고용 증가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청년 일자리 개선 해법을 알아보았다.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 동력도 저하되고 있다. 자본, 기술, 기업이 살아야 경제 활동 인구를 늘릴 수 있는데 현재 여건에서는 각 개인의 역량, 의욕을 담아낼 수 있는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대학은 인문계 출신이 많은데 인문계 출신 졸업자가 취업할만한 질 높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청년들이 원하는 고용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인력 시스템 변화를 원인으로 짚었다.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인력을 많이 정리했음에도 잘 운영 되는 것을 느꼈고 시스템도 그에 맞게 바뀐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더라도 기업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우며 2025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고용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는 공공근로 사업을 하듯이 전면적으로 정책을 바꾸어야 할 시기이며 민간에서도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간의 일자리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국민들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기업과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임금, 근로시간 등 제도적 규제를 풀어주고 기업의 고용조건을 유연하게 마련하게 해준다면 기업이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포스코와 KT 민영화 이후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는 사례를 들어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뉴딜러를 찾아서’에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를 소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기 부담이 됐지만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직원을 충원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 사원은 ‘IT 비전공자로 처음부터 시작했다. 이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정부 정책뿐 아니라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프로그램	우리 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1. 12. 5.	시청률	0.087

### 【총 평】

‘좁은 마을 진입로 40년 만에 확장 해결’ 편은 충북 보은군 회인면 용곡마을에 40년 전에 조성된 마을 진입로 폭이 좁아 차량 교차 진행도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되지 않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끝에 확장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된 소식을 전했다 ‘계곡 덮고 고속도로 공사? 국민권익위조정으로 해결’편에서는 경기도 안성의 서운산 산길이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흙으로 덮이는 문제를 국민권익위조정을 통해 해결된 사례를 전달했다.

### 【구성 및 내용】

충북 보은군 용곡마을의 좁은 진입로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 마을은 세 개의 마을이 모여 약 60여 가구에 1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이다. 1980년대에 만들어진 마을 진입로는 차량이나 대형 농기구 통행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에 교차진행을 위해 도로 중간에 임시대기소를 조성했는데 이런 조치는 오히려 더 큰 불편을 초래하였다.

용곡마을이 대청호 주변으로 낚시꾼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어서 임시대피소는 물론 도로가 불법 주정차장으로 이용되어 주민들과 낚시꾼들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경찰 신고 접수가 빈번했다. 이런 문제로 보은군은 도로 폭을 확장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고 군비 12억 원을 편성하였다. 그 결과 지난 11월 23일 공사 전 3m가 채 안 됐던 도로 폭은 6m까지 넓어져 차량 2대가 양쪽에서 진입하더라도 충분히 교차 진행이 가능한 폭으로 확대되었다. 또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서행 표지판도 새롭게 들어섰고, 용곡교에는 인도교도 들어서는 등 안전 시설물도 설치되었다. 보은군은 용곡마을 사례처럼 도로와 관련된 민원은 주민 안전을 고려해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은 최근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계곡 위에 성토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아름다운 산세가 망가지고 있다. 공사 이전에는 도롱뇽, 버들치가 살던 1급수가 흐르는 계곡이었고 아름다운 산세로 인구 유입도 꾸준하게 있어왔다. 더 큰 문제는 고속도로 건설로 계곡을 덮어버리면 홍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주민들은 계곡보다 높은 다리를 놓아 계곡을 살리고 그 위로 고속도로를 조성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형조건과 비용 문제로 ‘교량화’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사는 기존대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을 접수한 후 상황 파악을 시작했고, 관계 기관들과 논의하여 현장 조정회의를 가졌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와 대각선 방향의 통로 박스를 직각 방향으로 변경해서 길이를 기존보다 축소하기로 했고, 아울러 주민들이 우려했던 수해 피해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규모가 큰 수로 박스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